

건설산업기본법(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8월 30일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6-246호로 입법 예고돼 오는 19일(수)까지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그동안 건축설계 및 전기·통신·설비 부분의 건설업에 포함여부 문제로 우리협회 및 관련 단체들의 관심이 집중 되었다.

이와 관련, 지난달 6일 가진 공청회에서 우리 협회 및 관련 단체들은 건설업과는 별개인 각 분야의 특수성을 들어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후 우리 협회는 건교부 당국자간의 지속적인 의견 조정을 통해 협회측 의견이 대부분 반영, 입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p. 28 참조).

「'96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심사 마쳐

우리협회와 건설교통부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한 21세기 신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문화 행사인 「'96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준공건축물부문 작품심사가 끝났다.

총 75작품(주거부문 28점, 비주거부문 47점)이 출품된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20일 작품을 접수 마감하여 8월 23일 1차 사진첩 심사를 거쳐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2차 현장심사로 진행됐다.

이번 심사결과에 오는 9월 11일에 있을 계획건축물부문 심사결과와 함께 9월 16일 발표된다. 시상식은 9월 16일(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며 전시는 같은 장소에서 24일(화)까지 계속된다.

이번 준공건축물부문 심사에 참여한 위원은 다음과 같다.

한창진(전 대한건축사협회회장, 한정건축, 위원장), 안영배(서울시립대교수), 지순(간삼건축, 95년도 대상수상자), 심우갑(서울대교

수), 이호진(건국대교수), 정훈(서울경제신문 부국장), 박철림(대우건설기술연구소 소장) 이상 7명

우리협회, 수재민을 위한 성금 기탁

우리 협회는 지난 여름 경기북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깊은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들을 위해 지난 8월 20일 조선일보사에 1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하였다.

또 서울시건축사회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지역방송국과 신문사 등에 수재의연금을 기탁하고 수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조속한 재할 복구를 기원하였다.

이번에 협회와 각 시·도건축사회가 기탁한 수재의연금 총액은 3천9백만원이다.

서울시건축사회, 「시민건축대학」 제4기 강좌 열어

서울시건축사회(회장 이의구)에서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시민건축대학」제 4기 강좌를 연다. 시민건축대학은 건축에 대한 기본상식, 건축행정, 법규, 건축자재정보 등 건축과 관련한 교양강좌를 통해 내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나 소규모 시공업자 그리고 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다.

강좌내용은 건축물의 안전관리 풍수지리, 건축법규, 건축설비, 기타 행정업무 등이며 강좌기간동안 매주 2회(월, 금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실시된다.

장소는 대한건축사협회회관 1층 세미나실이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서울시건축사회 기술지도부/581-5715

□ 제4기 시민건축대학 강좌내용 및 일정

일시	내용	강사	비고
9. 2(월)	풍수지리(양택론)	박시익(도봉건축 대표)	입교식
9. 5(목)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시량(태신종합건축 대표)	
9. 9(월)	건축법규	윤혁경(서울시청도시경관과)	
9. 12(목)	건축시공	장양순(종합건축 동명 대표)	
9. 16(월)	건축설비(주택 등의 보일러 관리)	이정기(에너지관리공단 기획실 차장)	
9. 19(목)	건축실내장식	함정도(서울산업대 건축공학과 교수)	
9. 23(월)	현대건축 소개	김형우(홍익대 건축공학과 교수)	수료식

※ 강좌의 일시 및 내용은 주최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건축사회, 제2회 건축관계 심포지엄 개최



심포지엄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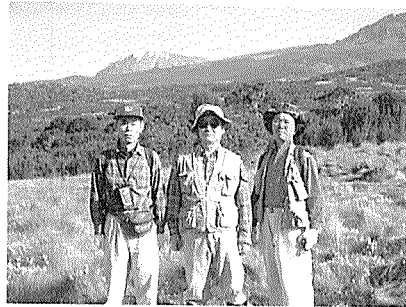
경기도와 경기도 건축사회는 지난 6월 17일 의정부 시민회관에서 21세기를 대비해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제1회 건축관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공무원 등 건축관계자 6백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이인재 경기도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건축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건축분야의 일대혁신과 발전을 당부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특히 발표자 및 토론자가 모두 건설현장에서 현업에 직접 종사하는 건축사, 시공자 등으로 구성된 관계로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진솔하고 현실적인 내용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심포지엄의 주요 토론내용은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건설업 시공자 등록제의 조기실시와 설계비와 감리비, 현실화 등이 거론되었으며 제도적인 개선과제로는 대규모 건설공사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건설사업 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현장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 책임도 부과하는 건설공사현장 실명제 도입, 건설근로자 복지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또한 건설업의 내실화를 위해 성실한 입찰자세의 필요성과 철저한 검증에 의한 설계, 유지관리의 중요성 제고 등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토의되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이날 행사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연 2회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10월말경 수원지역에서 제2회 건축관계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건축사회 등산동호회, 킬리만자로 등반

대구건축사회의 등산동호회원인 김두하, 박현일, 조정부 회원이 아프리카대륙

최고봉 킬리만자로의 정상을 정복하고 돌아왔다. 이들 대구건축사회 등산동호회원들은 지난 8월 1일 대구공항을 출발 홍콩, 볼페이 등을 거쳐 케냐의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해 다시 버스 편으로 300km를 달려 아루사라는 마을에서 최종 등반준비를 마치고 이후 4박5일간의 산행과 8시간의 정상도전 사투 끝에 무사히 정상을 정복하였다. 등산동호회가 정복한 킬리만자로는 동아프리카 북부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는 해발 5천8백95m의 험한 산으로 정상부근에는 분화구가 있고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세계 최고봉중의 하나이다.



대구건축사회 등반부

건설기술인력신고, 14만명 넘어

한국건설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건설기술인들의 경력신고가 1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금까지 기술인협회에 경력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자는 기술계기술자 10만1천명 등 모두 14만1천3백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시공분야 기술계 기술자는 기술사 7천9백44명을 비롯, 기사1급 5만8천8백58명, 기사2급 3만4천5백97명 등 모두 10만1천7백59명이며 기능직기술인은 1천4백7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학력·경력자들의 주요 등록분야는 토목과 건축분야로 각각 1만7천2백26명과 1만3천8백96명이다. 또한 기계 4천5백81명, 국토개발 1천3백7명, 건설안전 4백84명 순이다. 한편 건축사사무소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신고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우리 협회에 신고된 경력신고자 수는 이보다 낮은 지난 8월 말 현재 건축사가 3천8백92명, 학경력자 8천6백58명, 기능계 2천6십명, 기타 5백85명이며 기술계(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기타)도 8천6백94명이 신고를 마쳐 전체 신고접수자 수는 총 2만3천8백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 협회에 신고하는 학·

경력소지자의 신고는 9월 30일까지 계속된다.

건설교통부, 설계심의제도 개선

턴키발주(설계시공 동시발주)방식에 따른 프로젝트일 경우 이에 따른 실시설계심의는 지금까지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서 해왔으나 앞으로는 발주기관이 직접할 수 있게 되며 이와함께 심의대상 공사도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공공공사의 조기집행을 지원하고 설계심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설계심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설계심의제도 개선안에 대해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경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달 16일 관계자회의를 갖고 심의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며 이와 함께 중앙심의위원회에 상근심의위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설계심의의 결과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을 6개월에 한번씩 실시토록하는 등 심의내용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설계심의나 입찰방법심의는 위원장을 비롯 모두 2백96명으로 구성된 중앙건설심의위원회가 공항, 터널 등 28개 분야를 맡아 해오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설계심의제도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해오던 해당공사의 심의를 턴키로 발주할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위원회 전체 심의건수 3백28건 중 턴키가 75건이었고 일반이 2백19건 대안입찰 9건, 신고기술 및 계기준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6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제6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 전시회가 '건축가... 미래의 감지자'라는 주제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베니스 자르디니공원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국관 건립을 계기로 올해 처음 이탈리아 정부 초청을 받아 참가하게 되며, 현재 한국건축가협회 강석원 회장이 커미셔너로 선임돼 참가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번 전시회에 국립중앙박물관 현상설계공모 작품등 11점과 명동성당 설계공모작품 6점 등 총 17점이 참가하게 된다. 이번 건축전은 '건축가... 미래의 감지자'라는 주제로 한스홀라인이 큐레이터를 맡은 주제전(이탈리아관)과 각국의 신인건축가를 초청해 작품을 전시하는 Emerging Voice전, 베니스건축대학의 마리노 폴린 총장이 주관하는 이탈리아국내전, 세계 30개국이 참가하는 자국관전 등 총 4개 전시관전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번 건축전 기간동안의 전시회 참가와 이태리지역 건축기행의 프로그램은 한국건축가협회가 기획·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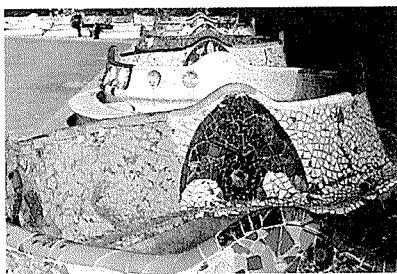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744-8050

(주)삼우설계, 창립2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주)삼우설계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20일 건축계 및 학계 등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유럽 현대건축가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근의 현대건축 흐름에 대한 조명과 더불어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건축계의 나아갈 길을 공동 모색하기 위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프랑스의 Jean Nouvel, 스위스의 Mario Botta, 네덜란드의 Rem Koolhaas, 영국의 Terry Farrell 등 4명의 초청강사 강연이 열린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들 유럽의 초청강사 외에 한국건축가협회 강석원 회장의 발제강연과 조주환(삼우설계)씨의 사회로 심우갑(서울대), 임창복(성균관대)교수와 박승홍(정림건축)씨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문의 : (주)삼우설계/3400-3114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안토니오 가우디 특별전시회』 개최



구엘공원의 벤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KIDP/원장 유호민)과 스페인 가우디대학원이 공동주최

하는「안토니오 가우디 특별전시회」가 오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서울시내 보도블럭, 버스 디자인 개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설계와 디자인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실물 41점을 비롯해 모조품, 사진, 스케치 등 총 73점이 전시된다. 가우디의 작품을 보전·발굴하고 가우디의 작품세계를 연구중인 가우디 대학측은 그동안 세계 74개국에서 이들 작품을 순회 전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은 가우디의 건축양식은 로마 고전건축과 고딕의 요소들을 혼합한 아르누보양식을 유일하게 건축물에 도입하여 환상적인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가우디 건축의 복잡한 기하학은 건축구조와 훌륭하게 일치되어 오벽면을 포함한 전체가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받아들여지며, 한편에서는 당시 아르누보의 유행을 초월하여 인간의 근원적 '불안'을 건축으로 표현하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의 작품으로는 그리스극장으로 구성된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구엘공원의 벤치', 성가족 교회(Holy Family Temple, 1883-1926), 아스트로가사교관 등이 있다. 문의 :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홍보실/708-2027~9

「장-미셸 빌모트 건축전」



장-미셸 빌모트 건축전 포스터

「장-미셸 빌모트 건축전」이 예술의전당 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열린다. 예술의전당

과 주한 프랑스문화원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열리며, 개막 당일인 9월 3일오후 5시에는 작가인 장-미셸 빌모트의 「건축에 있어서 디테일적인 요소에 관하여」라는 주제의 강연회도 개최됐다.

문의 : 예술의전당/580-1114

경기대 건축대학원·건축학과, 세미나 및 특강 마련

경기대 건축대학원(GSAK)과 건축과(SAK)에서는 각각 설계수업과 정보수업을 위한 스페셜 세미나와 스페셜 강좌를 마련한다. 9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경기대서울캠퍼스 지하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스페셜 세미나는 김준성씨가 디렉터를 맡아 영화감독 홍파씨의 한국영화 비평, 이상규 한양대교수의 전통음악과 미래음악, 화가 박권수씨의 신페라다임의 영향 등 건축 분야외에도 타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보다 폭 넓은 사고 및 정보를 수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경기대 수원캠퍼스 건축과 시청각실과 서울캠퍼스지하세미나실에서 열릴 스페셜 강좌에서도 건축가 이일훈씨의 채나눔 작법, 김창화 교수의 그리스·로마의 극장건축, 언론인 윤호미씨의 디자인과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마련했다. 일정은 9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회에 걸쳐 열리며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경기대서울캠퍼스/390-5245

「내진설계 기준에 관한 공청회」 열려

최근 일본과 중국 등 우리나라 주변에서 일어난 잦은 지진으로 인해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다 내실있는 내진설계기준을 마련코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유비콘 엔지니어링(주)의 주관으로「내진설계 기준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동안 홍성지진을 계기로 시설물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내진설계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1988년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1992년 도로교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적용기준이 외국에 비해 미비

한 형편이며 특히 일본 고베지진의 발생으로 건축물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분야(고속전철, 터널 등)에 대하여도 내진설계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6일 오후 2시 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1부 개회식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의 개회사, 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장의 축사 및 고려대 유철수교수의 기조연설이 있었으며 2부에서는 대본엔지니어링 유건신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명석 박사, 유비콘엔지니어링(주) 전형식 박사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3부에서는 고려대 유철수교수가 좌장을 맡은 분야별(지진, 토목, 건축, 산업연구단체, 정부) 토론 전문가 15명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한국건축가협회, 「제1회 건축사진 전시회」 개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에서는 건축물을 이해하는 또하나의 방법으로써 그리고 일반인이 건축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회 건축사진전을 개최한다. 출품자격은 건축가나 건축관련인으로서 작품의 내용은 국내의 건축물을 소재로한 사진(미발표작)이던 된다. 또 작품규격은 11인치×14인치 컬러사진이어야 하며 인화방식에 따라 컬러 슬라이드와 컬러네가티브부문으로 구분했다. 금상1점, 은상2점, 동상 3점의 입선작 다수로 선정된

작품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건축대전 수상작 전시와 병행해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744-8050

인천시, 건축물 심의절차 대폭 완화

인천광역시시는 종전 건축허가전 11층 또는 연면적 5천평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21층 또는 연면적 3만 3천평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했다. 지난 9월 1일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 개정안에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용 여부의 결정절차와 도시계획 등 불필요한 사유로 인해 건축기준에 부합하게 된 경우의 건축허가 기준에 필요한 사항도 신설했다. 특히 시는 이 개정안에서 공업지역과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과 일반·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20가구이상 공동주택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현행 3백~1천%에서 1백50~3백%로 하향조정, 주택단지의 과밀화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2회 Architecture as a Reality-라스메니나스展」 열려

대구 지역의 중견건축가 서보광(동성건축연구소)씨의 건축전시회가 오는 9월 2일부터 22일까지 대구(9월 2일~9월 10일, 대구은행 본점)와 서울(9월 13일~9월 22일, 경인미술관)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라스메니나스의 지형학展'이라는 주제로 현실비평연구소(대표 조권섭)가 주최하며 제1부-중정공간을 수용하는 폐쇄성의 구축, 제2부-퍼블릭:순환성의 방위추력, 제3부-아마디스의 전설 '매스의 이중주' 등 총 3부로 구성된다.

현실비평연구소측은 전시회의 대상작가를 작가 자신이 바탕을 두고있는 한정된 구역을 반영하고 봉사하는데 목적을 둔 건축가로 정하고 있는데 대구지역에서 개업한 이래 창립 20주년을 맞는 동성건축연구소의 서보광씨가 이러한 취지와 부합되어 대상작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9월 2일 성악가 백용진씨의 오프닝으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비평과, 비디오 상영, 설명회 등을 통해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갖게 된다.

문의 : 서울-현실비평연구소/
304-6539,
대구-동성건축연구소/
053) 754-2301
지역 전시회

96년도 건축사자격시험(특별전형시험 포함) 시험장소 안내

구분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시험		
1. 시험일자	○ '96. 9. 22(일)	○ '96. 9. 22(일)		
2. 시험시간	○ 건축법규 : 10 : 00 ~ 10 : 50(50분) ○ 건축설계 : 12 : 00 ~ 18 : 00(360분)	○ 건축계획 및 건축구조 : 10 : 00 ~ 12 : 00(120분)		
3. 시험장소	응시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교통안내
	00002~02548	서울고등학교	서초구 서초동	•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12분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도보 15분
	02554~04439	광남고등학교	광진구 광장동	•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도보 7분 • 지하철 2호선 강변역 도보 15분
	04440~06000 특별전형	광남중학교		
4. 기타사항	※ 시험장소인 학교에 차량 출입이 불가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해당 학교 이외에는 수험이 불가하니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학교, 지정좌석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합격예정자 자동응답서비스 안내 : '96. 10. 31~11. 3(4일간) 【700-1925】, 【700-4123(기관코드 : 54)】 (단, 【700-4123】 전화서비스는 정보이용료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